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8년도 표어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요10:10)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한국기독교학술원 공개 강연회 - 예수는 누구인가

성경의 예수, 그는 신화적 인물인가 (III)

- 역사적 예수 문제에 대한 논쟁들을 중심으로 -

VII. 임마누엘이신 나사렛 예수

① 역사비평학자들, Kähler, Bultmann 그리고 그의 제자들 모두에게 있어서 역사적 예수 연구의 단초가 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이다. 그러나 이성 중심의 역사 비평학자들은 처음부터 예수 부활을 부인하므로 복음서의 모든 증언들을 거부하고 예수를 도덕적, 윤리적 모델로 이해했다.

② 예수가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신앙 혹은 고대 근동과 헬라 문화의 부활 사상이 예수의 선포를 종말론적 그리스도에 대한 Kerygma로 만들어 놓은 것인가 아니면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부활이 예수를 종말에 임한 그리스도로 변형시킨 것인가 하는 문제다. 전자라면 역사적 예수에 대한 탐구는 무의미하다. 그렇게 되면 예수의 말씀과 사역, 심지어 Kerygma가 허구화된 예수처럼 허구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학비평만 있을 뿐 신학적 작업은 필요 없게 된다.

③ 그러나 우리가 후자 곧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객관적 사실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역사적 예수와 예수의 선포 그리고 케리그마의 그리스도의 연속성을 자료나 증언의 연속성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화육(化肉, 요 1:14), 즉 하나님의 인간으로 낮아지심(빌 2:6)과 그의 부활 승천에서 그 해결의 단초를 찾아야 할 것이다.

④ 예수의 부활 승천은 그의 화육, 인간됨, 죽음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즉 예수의 부활 승천이 역사적 사건이라면 그의 화육도 역사적 사건이고, 그의 화육이 역사적 사건이라면 예수의 부활 승천은 필연적 결과이기 때문이다.(엡 4:9-10)

⑤ 결과적으로 나사렛 예수는 태초에 계시던 분, 세상에 오시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분으로 다시 오실 인자다. 그리스도 예수는 유대인으로 역사적 실존 인물이다.

⑥ 나사렛 예수와 그의 제자들 그리고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역사적이고 인격적인 나사렛 예수의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계시다고 믿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⑦ Bultmann이 염려한 선포하는 분이 선포된 자가 되는 것은 유대주의적 사유 체제에서는 당연한 것이었다. 이러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임마누엘 사상, 곧 예수의 인격과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정당화 된다면 예수의 메시아 자의식, 역사적 예수와 케리그마의 그리스도의 연속성, 또는 예수의 선포(케리그마)와 초대교회의 선포(케리그마),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과의 연속성까지도 임마누엘 나사렛 예수(마 1:23)상에서 모두 극복된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의 모든 말씀과 사역은 곧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영원한 아들 하나님의 말씀이며 사역이기 때문이다. G. Maechen은 역사적 예수와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계신, 즉 천상의 예수를 동일시한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VIII. 왜 Solus Christus 인가?

예수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사상, 즉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주장하게 된다면 왜 예수만(Solus Christus)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① SBS가 신의 길, 인간의 길을 4부작으로 2008. 6.29-7.13까지 방영하여 최근에 두 명의 PD가 PD협회가 수여하는 상까지 받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다.

1) 방영된 1부 내용은 예수는 신의 아들이 아니며 기독교가 예수의 가르침을 잘못 받아들이고 예수를 신성화함으로 편협하고 배타적인 종교가 되었으며 종교간 갈등과 충돌이 야기되었다는 것이다.

ii) 그들은 기독교의 뿌리가 이교의 신화라고 주장한다. 이집트의 오시리스 신화와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신화를 유대 영지주의가 수입하여 예수 신화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는 역사적 인물이 아니고 오시리스와 디오니소스 생애를 그대로 차용해서 만들어진 인물로 그것을 만든 장본인은 바울이라고 했다.

iii) 비슷한 논쟁은 종교사학파에 속한 W. Wrede, Paulus(1905)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다. Wrede는 바울이 유대종말론적 메시아 개념을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와 일치시키므로 그가 만난 예수는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아니라 유대종말론적 메시아라고 하며 따라서 기독교의 창시자는 예수가 아니라 바울이라고 했다.

iv) SBS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신격화한 것을 콘스탄틴 황제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여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케 하는 니케아신경을 만들고 세계 종교로 발전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 역사적 예수에 대한 가장 믿음만한 신약의 증언과 그것에 기초한 기독교의 전통신화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 고대 비기독교 세계의 신화들, 기독교 역사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영지주의와 같은 종파의 문서들, 그리고 오늘날의 비정통파 신학자들의 저서에 나타난 견해만을 마치 새로운 이론인양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② 이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역사적 예수에 대한 접근 방법이 19세기 종교사학파의 접근 방법 중 하나였던 유비의 방법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이다. 고대 여러 나라의 신화들과 신약의 기록 사이에 피상적 유사성을 찾아내어 신약이 신화들로부터 유래한 것이라는 전제된 가설을 정당화 하고자 한다.

③ 플루타르크 영웅전에서 ‘사람들이 클레오메네스에게 영웅과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부여했다는 구절과 막 15장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한 구절이 유사하다 하여 성경의 구절이 플루타르크 영웅전에서 온 것이라고 한다. 이 같은 피상적 유비의 방법은 비논리적 비약에 따른 것이다. (4면에 계속)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2008 사명자 대회 21일째 행군 중 교회학교 전도도 계속 돼

10월24일(금) 오후4시 현재 1,491명 참여, 성경6독 통독 중

2008 사명자 대회가 21일째 뜨거운 기도의 열기 속에 5가지 공동기도제목과 놓고 24시간 릴레이기도의 불을 밝히고 있다.

연속 기도회는 10월24일(금) 오후4시 현재 1,491명의 성도들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이어가고 있으며 이들이 읽은 성경은 6독째를 진행하고 있어 사사기를 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님 말씀을 온 교회가 묵상하며 전도에 힘쓰고,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대상자를 위해 태신자 카드를 제출하며 기도요청서를 통하여 서로를 돕는 기도에는 해방의 시간이 되도록 한다.

또한 각 교회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전도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서별 전도일정은 다음과 같다.

· **유아부** : 유아부는 11월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 오전과 토요일 오후(교회 앞과 한티공원, 은마상가, 대치사거리)에서 전도에 나선다.

· **유치부** : 유치부는 잃은 양 찾기 운동을 펼쳐 11월9일(주일)을 초청의 날로 정하고 오늘(10월26일) 친구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한다. 또한 새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교회인근 유치원 앞에서 전도를 실시한다.

· **유년부** : 유년부는 11월 2일(주일) 오전 10시 한티공원에서 새 친구 초청 잔치를 열어 잃은 양 찾기 전도와 사생대회를 갖는다. 또한 잃은 양 찾기 준비작업으로 매주일 학교앞 전도를 더욱 열심히 펼치고 있으며 장기 결석하는 친구들 명단을 작성하여 반별로 심방에 나서고 있고 새 친구 초청카드도 발송할 예정이다.

· **초등부** : 초등부는 교회설립 기념주일(11월23일)을 총동원 주일로 목표를 세우고 선생님들이 24시간 연속기도회와 열열히 기도에 적극 참여하여 기도하고 있으며 특별새벽기도회 기간 동안에는 초등부 학생들도 함께 기도드리기로 하였다. 또한 사명자대회 기간 동안 태신자를 작성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

· **고등부** : 고등부는 11월15일(토)에 잃은 양 찾기

및 친구 초청 잔치의 날로 모이기로 하였다. 이번 행사는 11월15일(토) 오후 5시 601호실에서 열린다.

· **대학부** : 대학부는 11월22일(토) 모든 부원들이 참여하는 노방전도를 교회 앞과 한티공원, 은마상가, 대치사거리 등에서 펼치기로 하였으며 11월23일(주일)을 총동원 주일로 지킨다.

· **청년1부** : 청년1부는 11월9일(주일) 오후 3시30분 605호실에서 잃은 양 찾기 및 친구 초청잔치의 날로 모인다.

· **신혼가정부** : 신혼가정부는 11월9일(주일)을 총동원 및 전도의 날로 준비하고 있다. 부원들을 중심으로 24시간 연속기도회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특별새벽기도회 마지막 날(11월22일 토요일) 아침에는 새벽기도회 후 식탁교제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사명자 특별 주말 다락방으로 모이기도 할 예정이다.

· **사랑부** : 사랑부는 이번 사명자 대회 기간동안 다양한 행사로 매주일을 맞고 있다. 25일(토)에는 학생들을 더욱 잘 양육하기 위하여 교사들이 모여 교사기도회 및 연구수업을 실시하였다. 앞으로는 11월16일(주일) 오후2시에 101호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사랑부 천사들의 음악회'를 열 예정이다. 사랑부 학생들이 연주하는 핸드벨과 벨플레이트, 기타, 리코더, 난타, 워십밴드와 찬양으로 준비되어 성도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시간이 될 것이다.

· **디아스포라부** :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들의 모임인 디아스포라부는 11월1일(토) 오전 10시 아가페타운에서 모든 부원이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탈북자들을 초청하는 전도 행사를 갖는다.

이번 사명자대회를 맞아 전도에 진력하고 있는 모든 교회학교가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

2008 성경암송대회 결과 찬양예배 시간에 시상 및 성경암송

지난 10월24일(금) 오후 7시 602호에서 실시된 2008성경암송대회에는 각교회학교별 예선을 거친 29명의 성도들이 참여하여 뜨거운 열기 속에 성경을 암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번 성경암송대회 결과, **성경암송대상에 교육1국 초등부 4학년 박연준, 교육2-5국 장년부 김진달 집사, 영어성경암송 대학부 임연주** 성도도 가 차지하였다.

<입상자 명단>

- **금 상**: 교육1국 초등부 6학년 권하은 / 교육2-5국 장년부 김대웅 / 영어암송 대학부 김필구
- **은 상**: 교육1국 유치부 전민찬 / 교육2-5국 장년부 이영선 / 영어암송 유년부 한민희
- **동 상**: 교육1국 유치부 현대영 / 교육2-5국 정을순 / 영어암송 청년2부 박수진
- **장려상**: 유아부 송하은 / 강예원 / 이혜나 / 송지연 / 유치부 전민경 / 이세라 / 김태수 / 옥유진 / 송대협 / 윤유경 / 유년부 김지수 / 김민주 / 중등부 이신원 / 고등부 박호정 / 장년부 최용걸 / 영어암송 중등부 김하은 / 대학부 이정수

유아부 지도 교역자 청빙 김은숙 전도사



우리교회는 유아부를 책임지고 지도할 교역자로 김은숙 전도사를 청빙하였다.

김은숙 전도사는 장로회신학대학교와 장로회신학대학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영등포 교회에서 유아부와 유년부 교육전도사로 사역하여 왔다. 우리교회에는 11월 첫주에 부임할 예정이다.

미리암여성선교합창단 2기 신입단원 모집

11월13일(목) 오후 2시, 오디션 502호

미리암여성선교합창단이 2기 신입단원을 모집한다. 2기 신입단원에 응시할 성도들은 11월 13일(목) 실시되는 오디션에 응시하여야 한다. 오디션은 11월13일(목) 오후 2시 502호에서 열린다. 응시자격은 세례교인으로 50세 미만의 여성으로 자유곡 1곡(한국성가곡 혹은 찬송가)을 준비하면 된다. 현재 미리암여성선교합창단은 아가페 기독교 교도소 기공식에 초청받아 찬양을 하는 등 대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음악에 소질이 있는 여자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아브라함 선교회 사라 전도회 분립

이삭 선교회, 리브가 전도회 신설

선교회·전도회	연령
아브라함 선교회	70세 이상
이삭 선교회	65세 ~ 69세
사라 전도회	70세 이상
리브가 전도회	65세 ~ 69세

서울교회 전도위원회는 왕성한 활동으로 교회의 모범이 되고 있는 아브라함 선교회와 사라 전도회를 각각 분립하여, 이삭 선교회와 리브가 전도회를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참여와 활동이 기대된다. 시행은 2009년부터 적용된다.

대학부 / 청년1·2부 연령 조정하다

83·84뜨래 청년 2부로 진급

부서	생년	연령
청년1부	79년생 이상	30세 이상
청년2부	80년생 ~ 84년생	26세 ~ 29세
대학부	85년생 ~ 90년생	19세 ~ 25세

* 2009년 1월 1일 기준

동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연령 편제를 위와 같이 조정하기로 하였다. 이의 시행을 위하여 2009년 1월 1일부로 83, 84뜨래를 함께 청년 2부로 진급시킨다. 대·청부의 많은 부흥이 기대된다.

서울교회 교육위원회는 대학부와 청년부의 효과적인 활동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연령 편제를 위와 같이 조정하기로 하였다. 이의 시행을 위하여 2009년 1월 1일부로 83, 84뜨래를 함께 청년 2부로 진급시킨다. 대·청부의 많은 부흥이 기대된다.

사명자 대회

꺼지지 않는 불꽃의 현장

가을은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자 결산을 해야 하는 평가의 절기이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의 금융계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10년 전 IMF 금융위기 때처럼 총체적 위기상황이라고 가는데 마다 슬렁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웠던 IMF 때 어떤 자세로 무엇을 했는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하신 주님만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 예배당 건축의 위대한 꿈을 펼치고 있었다. 건축에 이런 저런 어려움은 있었지만 모두들 허리띠를 조르며 팔을 걷어 부치고 작은 힘을 모아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위대한 증인들이다. 우리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는 이때를 기억하고자 기념비적인 교회를 우리 가슴에 먼저 세우고 물질이 아닌 기도의 벽돌로 세워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예술작품이었다. 드디어 2000년 12월 25일 새 예배당에 입당하고 2005년 11월에 헌당을 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아가페타운까지도 건축 중에 있으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 준다. 주신 비전 따라 구원의 방주로서, 오고 오는 후손들의 앞길을 인도하는 나침반으로 그 소망을 감당하며,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의 센터로 우뚝 세우실 것을 믿는다.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로 사명자 대회는 시간마다 기도의 불기둥이 높아지고 열방을 위해, 민족, 국가, 교회, 가정을 위해 눈물 뿌리며 울부짖는 기도가 하늘보좌를 움직이고 있다. 기도는 사명자의 특권이요 축복이요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므로 영혼의 호흡을 통하여 우러러 주님을 찬양하며,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명자들이 다 되기를 소원한다.

오늘도 사명자 대회는 주님의 심장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꺼지지 않는 불꽃의 현장이 되고 있다.

(사명자 대회 홍보부)



박지연 성도 (청년2부)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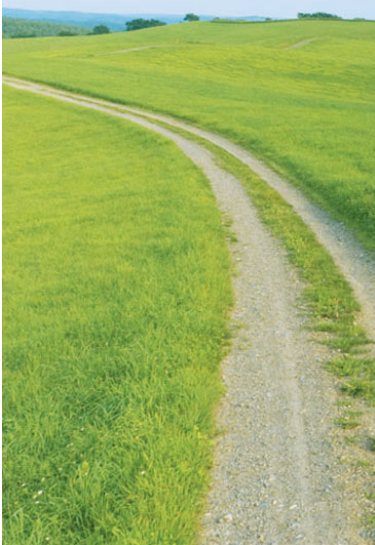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거친 들판에 혼자라고 느낄 때에도 언제나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나를 세심히 돌보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 그 무엇이 아닌, 아버지 한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늘 주님 찬양케 하시고, 삶 가운데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드러나게 인도하소서.

목요 70인전도대 도고기도팀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손성실 집사 (13교구)

할렐루야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 이 만군의 주시며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새벽예배를 통해 주님과 교제 속에 감격과 감사로 하루를 엮습니다.

저희 도고기도팀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601호에 모여 장석남 목사님의 인도로 전도대원들과 함께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경건회로 시작합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멋진 기타연주로 찬양을 뜨겁게 30여 분 진행한 후 '가라가라 세상을 향해' 라는 구호를 세번 외치며 전도대는 주님의 예비된 영혼을 향해 전도 현장으로 나갑니다.

저희 기도팀은 다시 찬양으로 열기를 더하며 대장이신 이인선 권사님의 인도로 말씀 암기를 하고 자신들이 먼저 낮아지고 겸손하며 날마다 변화 받는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종윤 목사님과 설교사역 도고기도팀을 위해, 부교역자님들을 위

해, 70인전도대와 각 전도팀을 위한 집중적인 기도와 교회, 열린프로그램, 우리들의 영성을 위한 각종 성경대학, 농어촌 미자립교회 교역자를 위하여, 목회자세미나를 위하여, 전도의 문이 될 수 있는 주부대학, 경로대학, 아가페타운 건설 진행을 위해, 사명자대회, 모든 서울교회 가족들(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피택자, 전 교구 환우들, 사무국 식구들)을 위해, 그 외 많은 기도제목들로 합심기도와 각자 돌아가며 전신을 다하여 기도를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 기도팀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 되어 내가 아닌 너를 위해 기도하는 파수꾼의 모임입니다.

먼저 기도자의 마음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육신의 강건에도 큰 유익이 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 도고기도 모임에 함께 하실 성도 여러분을 기다리며, 우리들의 신앙공동체를 통하여 주께 영광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약한 자들을 돌보고, 생명을 살리라는 그 말씀, 가슴 깊이 새겨 일평생 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한 삶이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항상 가까이 하게 하소서.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의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어진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착하다 일컫는 종이 되게 하소서.

오, 주님

불평하는 내 입술에서 늘 찬양하는 음성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물질의 정욕과 악한 것에 휩쓸리지 않게 하소서.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09년도 호산나대학 입학설명회 · 신입생 모집안내

**합격자 발표 11월 28일(금)
호산나학교 홈페이지에 공지**

우리교회가 이 나라의 소외된 장애인들을 교육하기 위해 최초로 설립된 호산나대학에서는 2009년도 대학 입학에 관심이 있는 장애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2008년 11월 8일(토) 오전 10시-12시 서울교회 601호에서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

2009년도 신입생은 창구접수와 더불어 인터넷, 우편접수를 동시에 실시하며 11월20일(목)에 마감하고 11월 22일(토)에 학교에서 필기시험과 구술면접을 실시한다.

모집대상은 지적 · 자폐성장애를 가진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09년 2월 졸업예정자이다.

합격자 발표는 11월 28일(금)에 호산나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www.hosannaschool.com)

제 2회 호산나학교 축제

10월 30일(목) 오전 9시

호산나학교에서는 2008년 10월 30일(목)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교회 7층, 9층에서 제2회 '호산나축제' 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레크리에이션 게임, 커피게임, 팔씨름대회, 먹거리 장터, 신나는 즉석 게임 존, 호산나가요제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호산나의 날 행사는 서울교회에서 목표로 하는 '빈약한 자 구제'에 발맞춰서 물품경매, 베품시장, 먹거리 등에서 얻게 되는 수입금 전액을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게 된다.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순서는 우리교회 수요 1부 예배에서 찬양을 담당하고 있는 호산나찬양대의 찬양으로 준비된다. 다른 어느 찬양대와 달리 여성들만으로 이루어진 호산나 찬양대는 주중 예배의 찬양대라는 특별한 임무를 띠고 있는데 정결한 목소리로 신앙 깊은 찬양을 드리고 있다.

오늘 저녁에는 "나의 눈을 여소서" (K. Scott 작곡) 외에 2곡으로 찬양 드린다. 지휘 서희숙 권사, 오르간 김윤지 선생, 피아노 홍해란 선생 그리고 팀파니에 박광서 교수가 수고한다.

2008 가을 10회 가을 정오 음악회(10월28일)

Chamber Music Concerts with Organ 플루트와 오르간을 위한 연주회

이번 주 화요정오음악회는 플루트와 오르간을 위한 연주회로 열린다. 플루트: 유카 아오야마(일본 가가와 대학교 조교수), 오르간: 채진수 선생(성결대학 예술대학장)이 연주하며, 이날 연주할 곡은 Prelude, Adagio et Choral varie (M. Durufle, 1902-1986)의 5곡이다.

피택자 고시 및 면접

피택자 고시 및 면접이 10월31일(금) 오후 7시 801호에서 열린다.

동정

■ 개업: 박두호 장로 · 한성옥권사 가정 (7교구) 「모내기 밥(한식당)」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505-17 T. 031)533-0717(홈플러스 옆) 개업예배 10월30일(목) 12시 교회 출발 오전 10시 30분

■ 주간 식당 봉사: 도르가전도회(10.26) 루디아전도회(11.2)

■ 금주의 식사: 한주찬 집사 김수호 권사 가정
방효철 장로 남상경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 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 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 회	오후 8시30분	
새 벽 기도 회	오전 5시30분	

1면에서 계속

④ 기독교의 부활사상이 지중해 인근 여러 지역의 종교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 또한 나그함 마디에서 발굴된 영지주의 문서를 인용하면서 예수는 고통을 겪지도 죽지도 않았으며 따라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수의 육체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는 이미 초대 교부들에게 정죄된 이상 사상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를 2세기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책으로 주장하는 Bultmann의 이론은 Mc Wilson의 Gnosticism과 Gnosticism의 구분으로 요한복음이 1세기의 책으로 판명되었다. 이처럼 성경은 영지주의를 철저히 배격한다.

⑤ 역사적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료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i) 유대인 역사가 Flavius Josephus(c37-c100AD)는 19세 때 바리새파에 입당, Antiquities(93 AD)에서 예수에 대해 두 차례 언급한다.

ii) 바빌론 탈무드에도 예수에 대한 일과 죽음, 제자들 이름까지 명기되고 있다.

iii) 복음서가 신화적 책이라면 예수의 신화를 창출할 만한 필요한 시간적 길이가 간과되어 있다.

iv) 목격자의 현존을 무시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신다.

⑥ 다원주의 신학(Pluralistic Theology)과 Post Modernism의 실패.

⑦ Solus Christus의 진리 - 그리스도 밖에서 즉 자연

계시가 있었지만 구원을 가져오지 못했다. 그러므로 역사상 실존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단순한 모범자, 심리치료자, 건강과 부기를 나누어 주는 분, 사랑하는 자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19세기, 20세기에 확산되었던 역사비평주의자들처럼 신화적, 전설적, 조작된 소설적 인물도 아니다.

성경이 선포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역사의 예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초자연주의적(supernatural) 구원주이며 섭리주, 심판주 되심을 고백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나사렛 예수이심을 믿고 선포해야 한다. (끝)

교회설립 17주년 기념 축시 및 산문 공모

우리교회 설립 17주년을 맞이하여 순례자 편집국에서는 여러분의 시와 산문(수필, 간증)을 공모합니다. 많은 참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 원고마감: 11월 9일(주)
- 발 표: 11월 23일(주)
- 제 출: 사무국 (유태서 집사)

- 순례자 편집국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서울교회 받은 사명 수행토록 보호, 인도하심과 능력을 주소서.
2. 서울성경대학 · 주부대학 · 경로대학 등 각종 열린프로그램들 열매가 풍성하도록
3. 34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다락방 모임에 성령의 인도하심 있기를
4.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도록

■ 교회오시는 길

